

# 전남 청소년 절반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 상담센터 ‘2018년 생활 실태조사’

10명 중 5명 “결혼 생활에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간의 대화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8년 전라남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는 전남 22개 도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841명을 대상으로, 전남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청소년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22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52.1%로 나타났다. 결

10명 중 5명 “결혼 생활에 자녀는 없어도 된다”  
30%가 “자신의 고민 부모와 대화 하지 않는다”

혼 후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도 57.1%의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89.1%의 청소년이 공동 가사분담에 대해 당연하다고 응답했다.

부모(양육자)와의 주제별 대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32.3%는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대화시간을 보면 6.6%의 청소년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어머니와는 3.4%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이 부모와의 갈

등·방임 정도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볼 때 중·고등학생이 초등학교생보다 부모간 갈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주말 수면시간은 중학생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중에는 7시간 25분, 주말에는 8시간 47분을 수면시간으로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상위 학교일수록 수면시간이 짧았다. 청소년 신체활동시간은 일주일 평균 2.9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초등학교생의 평균 신체활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생의 평균 신체활동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영역의 학교생활부적응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높았고,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일상 생활과 가치관과 관련된 건강 영역, 참여활동, 가정생활 및 가족관, 사회관,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진로, 직업, 직업 및 직업관, 위험요인 등 다양한 면에서 이뤄져 청소년의 종합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했다.

세부적인 설문 결과는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홈페이지(www.jnyouth.or.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청소년 중심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책개발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단이 가정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서구 제공>

## 서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듬우리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 서구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구 건설을 위해 발굴에서 연계까지 눈스톱으로 진행되는 안전망 ‘보듬우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보듬우리 네트워크’는 서구 18개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위기가구 발굴단, SOS희망기동대 등 1000여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적, 사전적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구는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공과금 장기 체납가구,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정형 주택 거주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를 최우선으로 연계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복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발굴 대상자가 공적급여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신고자에게 2만원의 운누리 상품권을 제공하는 희망배달통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구는 현재까지 고위험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및 외부기관 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만1531건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1379건, 복지 1촌맺기 479건,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9673건으로 가구별 위기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구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주민센터나 서구청 사례관리팀(062-360-7100)으로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울 11만7천명에 제공

정부가 올해 산모 11만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출산가정으로 고장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7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000원, 최대 지원액은 311만9000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산모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산모가 첫째인 단태아(한 아이)를 낳고, 표준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 기간은 10일, 비용은 112만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4만원으로, 38만원은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광주시 서구 유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서구 유덕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서구 제공>

## 장애인 임신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광주 남구,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광주시 남구는 장애인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산전 검진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산전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산후 건강관리비는 국고 보조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액 외에 본인 부담금이 지원된다.

총 서비스 비용이 정부지원 60만원을 포함해 본인 부담금액 40만원 등 100만원인 경우 총 서비스 비용의 10% 비용인 1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0만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출산을 한 장애인 임신부의 경우 1개

월 이내에 장애인 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출산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이 예정된 장애인 임신부는 장애인 임신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임신부의 경우 이달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임신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보건소(062-607-433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광산구,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이용권 지급

광주시 광산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1~2008년 출생한 만 11~18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다.

최초 한번 신청으로 최대 96개월간 광산구가 지원하고 바우처 이용권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원금은 월 1만5000원씩 연간 최대 12만6000원으로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1·7월에 각각 6개월 분 지급되는 포인트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